

지구과학 창의적 이야기 쓰기 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김윤지 · 정진수 · 위수민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 교과를 대학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학습자로서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이야기 쓰기 활동을 중부 지역의 국립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교양 수업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약 10주에 걸쳐 지구과학 개념을 소개로 하여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쓰는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후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묻는 5가지의 개방형 설문문에 답하였다. 문항은 Lusk et al.(2006)의 선행 연구를 통해 대학 지질학 수업에서 창의적 글쓰기 방법을 적용한 이후 이루어진 면담 문항을 변안하고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과학 개념은 주로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물었던 문항에 대학생들 대다수가 학교 수업을 답하였고, 이야기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가장 큰 도움 또는 영향을 준 것으로 다수의 대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함께 독서와 상식을 답하였다. 이야기 쓰기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어떠했나를 물었던 문항에 대학생들은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고 흥미가 유발된다는 장점과 어렵고 힘들다는 단점을 언급하였다. 이야기 쓰기 활동에 대해 부족하여 반성할 점을 물었던 문항에는 대다수가 자신의 개념이 부족함을 반성하였고, 일부는 글쓰기 능력이 부족함을 탓하기도 하였다. 이야기 쓰기 활동을 마친 후 지구과학 교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었던 문항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및 교과와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많은 학생들이 답하였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화하였다고 밝혀 대학 교육과정의 학습 수단으로서 창의적 이야기 쓰기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신저자 김윤지 (vegalike@hanmail.net)